

宋詩의 特性

車 柱 環 (서울대학교文理大)

우리가, 國學의 方法論과 課題를 摸索하자는 大題를 내걸고 行하여지는 이 Symposium에서, 宋詩에 關한 諸問題를 다루는 것은 혹시 大題와 聯關性이 없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갖게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高麗時代에 宋과의 文物의 交流가 극히 활발했던 일은 우리 史家들이 이미 整理한 일이며와 무엇보다도 우선 麗末에 시작하여 朝鮮五百年을 風靡한 性理學 내지 朱子學은 결국 宋代에 大成한 新儒學理學의 祖述과 研究였음을 否認할 수 없고, 그것에 앞서 우리 舊時代의 知識人들 사이에 盛行하기 시작하였던 漢文에 依한 文學活動은 宋代文人의 影響을 가장 많이 받았고, 朝鮮五百年 동안에도 特別히 漢詩에 있어서는 宋代詩人의 影響이 支配的이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좀 과격하게,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漢詩作家들이 唐詩나 그 이전의 詩들을 몰랐던 것은 아니다 그것들에 대한 理解 내지 評價는 宋代詩人 내지 評論家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 정도다. 우리 先賢들이 陶淵明을 좋아하고 杜甫와 韓愈 등을 좋아한 것도 그러한 一面이라고 하겠다. 歐陽修와 蘇軾이, 특히 後者가 우리 先賢들의 漢詩創作에 至大한 影響을 주었다는 것은 누구나 認定하는 일이다. 한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의 漢詩를 살펴본다면 五言詩보다도 七言詩가 많이 지어졌고, 또 七言詩 가운데 好品이 많은 것을 알게 되는데, 直截하게 말해본다면, 이것 역시 宋代의 代表詩人인 蘇軾의 影響에서 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살펴볼 때 오늘 우리가 宋詩를 中心으로하여 討論을 試圖하는 일이 文學研究를 위한 方法論과 課題를 摸索하는데 있어 결코 無關하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宋代(北宋: 960—1126; 南宋: 1127—1276)에 들어서부터는 過去의 詩의 評價가 意識적으로 行하여지고 또 그러한 評價에 立脚한 過去의 詩의 特長을 尊重하여 그것을 詩作에 實際로 살려나가려는 努力이 傾注되었다. 陶淵明의 詩가 尊重되고, 杜甫의 詩精神이 詩作에 살려지고 韓愈의 散文的인 詩方法이 歡迎되고, 各種 技巧上의 發展을 이룩한 것들은 그러한데서 온 結果라 하겠다.

韓愈(768—824), 柳宗元(773—819)등이 中心이 되어 推進시켜오던 唐代의 古文運動이 北宋初부터 時代的인 潮流를 이루어 文章界를 風靡하였다. 古文을 崇尙한다는것은 결국 文章을 짓는데 있어서 形式上의 拘束 내지 制限을 最大限으로 排除하고싶은 말을 活達하고 自由스럽게 써내자는 散文精神의 發露라고 할 수 있다. 宋

詩도 古文 運動의 影響을 받아 典雅·華麗한 것을 避하고 表現이 明白해지고 詩意의 提示가 平易하여지는 傾向이 顯著하여졌다. 이러한 傾向의 自然的인 結果로 宋詩는 抽象性보다도 敘述性이 顯著하여지고 論理性을 講究하는 方向으로 展開하기에 이르렀다.

이 時代에 와서 理學이 極盛하였는데, 理學이란 결국 儒家思想의 새로운 解釋으로, 道·佛의 哲學方法이 無醇되어 한층 理論化한 것으로, 詩作이 理智的인 方向으로 흐르는 것을 刺戟하였다.

古文과 理學의 影響 밑에서 詩의 敘述性·論理性내지 哲學性이 은연중에 支配的인 性格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따라, 律絕이 지어지지 않은것은 아니나, 律絕보다도 形式上의 制約이 덜 謹嚴한 古體의 詩가 더 많이 지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詞가 宋代에 들어와 全盛하는데 따라 齊言體의 詩는, 그것이 다루는 世界가 詞의 世界와는 儼然히 다른 것이라는 詩의 尊嚴性에 대한 自覺을 더욱 뚜렷하게 가져오게 되었다. 友情·寫累·君子人의 抱負와 感懷·生活과 哲學등 詞에서 다루어지는 世界와는 극히 對照的인 世界에서 詩의 題材를 取擇하게 되었다.

宋代는 北宋·南宋에 걸쳐 外勢의 壓迫을 받기는하였으나 領土內에서는 平和가 維持되었고 또 知識人의 社會的地位가 前例없이 提案되었고 아울러 君主들도 詩를 愛好하였던 관계로, 自然文運이 興隆하였고 生活藝術도 非常하게 發達하였다. 이에 隨伴하여 詩에 다루어지는 題材의 範圍가 대단히 擴大되어, 日常生活의 些細한 部分 내지는 人間과 係關되는 零細한 事物까지도 詩로 읊어내는 정도에까지 이르렀다.

宋代에 와서 書畫의 藝術이 飛躍적으로 發達하는데 따라 詩人들이 題畫詩를 쓸 機會가 무척 많아졌다. 그러진 畫幅에 써넣는 詩이므로 題畫詩는 그러진 異物을 通眞하게 描寫해내고 거기에 흐르는 情趣를 切實하게 집어내어야하므로, 感覺을 통해 情意를 刻畫해내는 獨特한 技法이 必要하게 된다. 이러한 題畫詩의 手法이 一般的인 寧景詩에도 널리 應用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수월하게 알아볼 수 있다. 그리고 宋詩에서의 自然은, 唐詩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人間의 보잘것 없이 微小한 것에 對照되는 悠久한 自然과는 달리, 그것에의 親密性 심지어는 人間의 優越性을 가지고 다루어져 있는 것을 發見하게 된다.

宋詩는 多角的인 視線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으나 그 視線은 接近한 日常生活의 티두리 안에서 머물러 있었던 것은 아니고 巨視적으로 社會의 여러가지 問題에까지 뻗혀져서, 人間과 그것을 圍繞하고 있는 世界의 狀態를 크게 把握하여 그것을 詩에 담아내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 宋代詩人들은 대체로 自己自身이 그 世界에 積極적으로 參與하고 있다는 自覺 내지 義務感을 뚜렷이 지니고 있었다고 하겠다. 宋詩는 激昂한 感情의 露出보다도 도리어 感情이 平靜해진

理智的인 特性을 지니게 되었다. 宋代에 들어와서 詩는 漸次로 舊來의 詩에는 의례히 담기워야 한다고까지 여겨져오던 悲哀에의 執着을 止揚해버리는 段階에까지 到達했다. 宋詩에 나타난 悲哀는 絕望的인 것은 드물고 希望을 갖게하는 실다리를 남겨주는 것이 보통이다. 絕望에의 誘惑을 克服한 것이라 하겠다.

三百餘年에 걸쳐 계속 발달하고 번성한 宋詩는 詩人과 作品에 걸쳐 量的으로 唐代의 그것을 훨씬 凌駕하는 大盛況을 이루었고, 이와 아울러 前代詩의 研究와 批評이 줄기차게 行하여지는데 따라 詩壇에 적지 않은 流派가 생겼다. 個人的인 友好關係, 前代詩의 特異한 部分을 強調하고 그것을 作詩上의 目標 내지 準據로하는 傾向, 또는 한 두 出衆한 詩人이 擡頭하는데 따르는 追從者의 輩出 등등으로 流派 내지 個性을 띤 詩體가 생겨나게 된 것이라 하겠다. 流派다 詩體의 區分을 통틀어 宋詩變遷의 大體를 推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나 要는 晚唐李商隱을 祖述한 西崑派를 中心으로하여 새로운 時代의 詩를 摸索하던 宋初 約半世紀 동안 宋詩의 特性을 보여주기에 이르지 못하고 歐陽修등이 崛起하여 杜甫·韓愈등의 詩를 崇尚하면서 詩의 세계를 개척해나가서부터 宋詩의 特色이 뚜렷해지기 시작했다. 그후 王安石 蘇軾등 大家가 輩出하고 蘇派의 詩人 黃庭堅을 받드는 江西詩派가 나와 宋詩는 大盛況을 이루었다. 江西詩派의 自動으로 晚唐詩를 崇尚하는 詩人들이 나왔으나 그것은 詩의 體載에 있어 晚唐詩를 본받는데 그치지 詩의 精澗이나 作詩의 態度에 있어서는 宋詩의 特色을 돌보지 않은것은 아니다. 이러한 中間에 蕭德藻·楊萬里·陸游·范成大 같은 瘦硬·生澀·輕圓·精緻한 體載가 서로 다른 詩를 쓸 大家들이 續出하였다. (以上 漫堂詩說·宋詩紀事序參照.) 이러한 宋詩는 앞으로 徹底히 研究할 價値가 있고 더욱이 韓國의 漢詩 내지 그것이 韓國 詩歌文學에 끼친 影響등을 研究하는데 있어서는 宋詩의 研究는 必要不可缺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